

한국현대도자의 사회적 상응관계 연구

A Study of social correspondence in Korean contemporary ceramic arts



박선우 (Park, sun woo)

서울산업대학교 도자문화디자인학과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II. 현대도예의 사회적 접근

1. 개인적 차원
2. 사회적 차원

III. 재현과 아방가르드

1. 재현의 포기과 표층구조로의 환원
2. 비물질화 경향
3. 아방가르드의 딜레마

IV. 결론

참고문헌

(keyword)

representation, minimalism, formative arts, modify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해방이후 형성된 한국의 현대도예작품들과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연계관계를 밝혀내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도예에는 크게 추상표현주의 및 미니멀리즘의 도예적 변형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서양의 것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확산되었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가 창작의 동인(動因)에 근거한 입장이라면 후자는 수용의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위의 두가지 입장에 근거하기보다는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사회가 가지는 요소 혹은 구조와 작품구조간의 연관성을 찾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예술의 사회적인 본질과 관련하여, 예술작품의 구조와 발생 그리고 그 예술작품을 발생시킨 시기의 세계관이나 사회적인 관행 혹은 그 관행을 만든 의식들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예술과 사회라는 구조는 상호영향하에 일종의 상응관계를 이루고 서로 닮아있는 상동성(homology)을 가지게 됩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도예의 전개를 사회전개의 양상과 비교하고 서로의 원인을 서로 안에서 찾아내어 둘간의 상응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국현대도예에 대한 미학적인 논의들 외에 사회적인 논의라는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대도예에 대한 지평을 넓혀 도예를 예술의 지평에서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bstract

This thesis starts from a viewpoint that a creation of artworks is somewhat connected with the representation of social aspects, and tries to explain such a relationship through the Korea Contemporary Ceramic Arts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since the liberation.

Contemporary Ceramic Arts in Korea, as a rule, can be divided into ceramic livingware and ceramic as

expression, that is, artwork. The former is based on the practicality that is the essence of ceramic art, and the latter was settled under the influence both Abstract-Expressionism and Minimalism in Contemporary Art. The one is a product of the capitalist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other is a symbol of tha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latter, and so tries to reveal how the social phenomena have an effect on the symbol of art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tructure and it. This thesis, therefore, is focused on a subject of both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structure of artwork. In this case, the premise is that the structure of artwork is correlated with the social structure, corresponds to it, and has homology with it.

Founded on this premise, it is considered that what is the homology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mporary Ceramic Arts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 of modernization in Korea, which is the capitalistic modernization, or restraint and concealment derived from the autocrac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approach suggests such a wide comprehension of Korea Contemporary ceramic art as social subject for discussion, as well aesthetic contemplation of it.

For this, first such theories as iconology by Erwin Panofsky, socialization of art by Jean Duvignaud, and study on modern novel by Lucien Goldmann are accepted. They a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production of artwork and social structure. Secondly the theory of modernization by Jurgen Habermas is accepted. This is valid to demonstrate the influence of mutuality. Especially, his theory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is adopted to search for a way of developing the Contemporary ceramic art in Korea hencefor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ceramic art in Korea shows experimental and progressive aspects seeking for a new visual language, in correspondence with the social structure as restraint and concealment. The modernization in Korea brought about restraints of value and activity of an individual,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olitical suppression, though it gradually acquired the riches of material

and political freedom. Therefore, it is represented as the autocracy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will to political freedom. In the development of Korea Contemporary Ceramic Arts, these social conditions were expressed as structural restraints, which turned the entire control of society into that of an individual, namely, creator. This caused a mere tendency that pursued the beauty of support-surface without any social utterance in art.

These features present an estrangement between art and society, which forms a striking contrast to the social function of art such as an arrangement of structure of mutual communication and the pursuit of variety of it. Contemporary Ceramic Arts as an artistic expression, in result, would be remained in the closed flow.

On this account, this thesis tries to suggest a scheme that Contemporary Ceramic Arts could develop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with everyday life and social conditions, improving that closed flow.

In conclusion, two respects are asserted, such as not only in reinforcement of social function, but in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essence of ceramic art according to the value of both beauty and use. To be concrete, they are as follows. first, modern ceramic art in Korea must promote an integrated aspect free from a strict division between arts and crafts, which is practical and contribute to our emotion and thought as well.

Second, it must form a new significance against the concept of classification of work and limitation of material, through an renovational experiment of genre. Third, there is the task of the times that must develop the fruit of Contemporary Ceramic Arts more, consolidating and modifying the established realm of arts and crafts.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논제 접근은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1)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2) 경제개발과 관련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의식이나 심적 관행(mental habit)이 어떻게 현대도예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이 어떠한 조형언어로 표현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우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그 변동과정을 관통하는 사회적 의식과 심적 관행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대도예의 양식적인 특성과 절차와 관련하여 상호 영향관계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를 위해서 루시앙 골드만의 상동성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구조와 예술구조 사이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집합의식(collective mentality)**¹⁾을 이론적인 근거로 조형도자의 창작국면과 절차들 그리고 양식적인 특징들이 창작의 기반인 사회구조와 조우하는 면을 재구성해 나갑니다.²⁾

한국 현대도예는 물성의 탐구와 재현의 포기 그리고 그에 따른 **형식주의와 탈이미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술적인 형이상학의 세계나 관념 그리고 자연회귀적인 것 등 **탈사회적**인 것을 지향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창작의지의 지향과 절차들을 통해서 한국의 현대 도예는 재료에의 환원, 그리고 물질적인 경향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미술의 사회 내 존재로서의 역할 보다는 미술이 가지는 순수 미술적인 측면에로의 밀착된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동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개인에게 가한 정치 사회적인 억압과 은폐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량적 가치(교환가치)의 정성적 가치(사용가치)에 대한 전환을 제시하려 합니다. -사물화 현상 (물성탐구→재현포기→탈이미지화→형이상학/관념/자연회귀/→탈사회화→사물화현상)

다시 말하면, 형식미와 물질에 근거한 정신성의 표현이

1) 집합의식이란? 사회구성원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집단적 의식들 즉, 세계관

2) 루시앙 골드만, 송기영 외 역 「숨은 신 - 비극적인 세계관의 변증법」, 서울: 연구사, 1986 p30'40

사회적 발언의 금지와 억압을 은폐하기 위한 순수 형식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어 **‘발언’ 대신에 ‘표현’의 영역**을 주된 영역으로 하여 사회로부터 독자적인 영역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는 질서를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물질화에 따른 빛물질화의 추구는 역설적인 저항의 의미로 **사회와 예술을 차별화**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예술창작의 절차 및 국면이 사회 내 존재로 사회와 연관된다는 것을 밝혀내어 기존의 미술사적 연구나 미학적인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혹은 정신 문화적인 연구가 아닌 물질 토대에 근거한 예술작품의 분석이라기 보다 현실적인 국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II. 현대도예의 사회적 접근

한국 현대도예는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총체적인 억압과 관련 속에서 전개됩니다. 한국 현대도예의 예술지향성과 형식주의 그리고 미니멀화(minimalized)경향, 내용상으로는 사회를 벗어나는 자연주의적 경향들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 또는 순응의 형태를 차용한 이런 경향들도 그 표현과 발언에 있어서 사회적인 구조와 상동관계 속에서 표현과 발언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해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발언을 총체적으로 정지시키는 양상으로의 전개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사회적인 현실을 은폐하는 구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에 대한 은폐의 양상들은 창작과정에서 1)**개인적인 차원**과 2)**사회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창작자는 **자아와 주체소멸**의 의지로 **탈이미지적 조형**, 즉 **일루전(형상)**을 제거하는 조형행위에 가까이 가려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해체와 익명성의 의지로 인해서 보이는 이미지와 형상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미지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에 의해서 조성된 것일 뿐 그 너머의 형이상학적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은 **탈사회적**

인 것, 즉 **[자연의 순리]** 라고 여겨지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장애가 되는 이미지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형행위자체를 신비화하고 만드는 대상자의 주체를 소멸시켜 자연에 이르게 하는 무의적인 세계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의 소멸은 사회의 억압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그 대응의 구체적인 예가 [물성 그 자체] 를 추구하거나 자신이 조성한 세계를 사회가 아닌 자연 속에서 혹은 그것의 질서 안에서 안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작품은 근본적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형식을 기표로 하여 내용이라는 기의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도예의 주된 양상으로 부각된 물성의 추구하고 자연주의는 사회전체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을 피하고 최상의 자연에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표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신에 기의적 국면이 축소되어 ‘의미관계’는 전달하려 하지 않고 형식미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술가는 이런 **무위적 자연의 추구**로 인해서 **사회현실의 억압에서 빚겨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현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며, 이러한 공격을 위해서, 혹은 억압적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억압받는 현실을 은폐합니다. 은폐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전혀 사회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때 **물성은 권화(勸化)**된다. 물성의 권화란 **물성의 회귀**를 뜻하며 물성이 해체된 이후에 획득되는 것으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다분히 ‘이념적인 것’에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은 이상적인 무엇으로써의 의미를 획득한다. 물질의 성질은 이제 자연 그 자체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로서의 어휘적 개념이 아닌 ‘정신’을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회적 차원

우리 사회의 경우, 자아와 주체의 소멸은 일찍이 전쟁세대가 경험했던 죽음의 의식에서 서서히 지각되다가 모더니즘의 대 공세에 짓눌린 후 강압정치체제의 출현과 때를 같이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자아와 주체의 소멸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의 혼란의 와중에서 ‘삶의 부질없음’의 형태로 작가들에게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각은 6.25전쟁 이후에 물밑 듯이 밀려온 서양미술, 특히 미국적인 모더니즘의 유입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구조의 미술행위가 가능해지지만 그것은 곧바로 진행된 군사 쿠데타로 인한 군사 권위주의 정권의 성립과 전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 3공화국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군사정부는 이러한 중앙집중화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행정부 중심의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데, **관료주의적 정책결정**과 집행방식이 주요한 체제운영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관료의 효율적 통제는 각종 정치적 개입이나 민의의 수렴을 억압하고 **효율중심의 개발독재**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사회적 억압의 주요원인이며 동기부여의 원인이 됩니다.³⁾

사회적 억압이 작가들에게 은폐의 계기를 제공하는데, 이를테면 물소리나 새소리 혹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잡스러운 자신들의 사회적인 자아를 해체하려 했던 것이다. 자아를 해체하고 무명으로 자신을 몰아감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타자로서의 자연’**속에서 자연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자아를 해체하고 자연과 동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⁴⁾

그렇다면 작가들은 이러한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용하고 있을까?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들의 추종자들은 다른 세대가 가지지 못한 일종의 공동의식 내지는 **집합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의식을 탈사회적인 수준에서 표출하게 되는데 탈사회적인 표출의 대표적인 것이 **「표면화」**입니다. 여기서 표면화란 내용과 형식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법, 내지는 방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화의 논리적 귀결은 **형식미의 추구**와 그 **형식의 무화(無化)**로 나타납니다. 어차피 사회적인 발언의 통로는 국가적인 통제로 막혀있고, 작가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미의 구성이었으며 인공에서 가져오는 것을 제로로 돌리는 방식, 즉 무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추구하되 형식을 철저히 버리고 **물체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물체에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예술가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

³⁾ 임현진, 「국가와 지배구조」, 「한국사회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우학술총서, 1999, p421

⁴⁾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3, p90~97

니멀리즘)

III. 재현과 아방가르드

한국 현대도예의 특징은 1)재현의 포기⁵⁾와 표층구조의 탐색⁶⁾, 그리고 그것을 2)형이상학적, 자연적 차원에서의 비물질화 그리고 3)아방가르디즘의 추구⁶⁾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근간으로 합니다. 재현의 포기는 사회적인 발언의 포기⁵⁾와 더불어 이루어진 특징으로 자본주의적 억압과 관계되며 표층구조로의 환원은 군사독제의 중앙통제적 독제의 억압이 은폐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물질화 경향은 우리 본래의 선비정신 내지는 예술의 고결함 혹은 예술가의 신분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중의 억압을 피해가는 거처로 상정하고 하나의 단일한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도피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방가르드 정신의 추구는 현대도예가 실용적인 것을 포기하고, 예술적인 국면으로 현대미술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공예로써가 아니라 순수 조형예술로써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도예가들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실용 대신에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비사회적인 성격에 경도되어 탈사회화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재현의 포기⁵⁾와 표층구조로의 환원

조형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 현대도예는 흙(지지대) 자체를 표면구조로 파악 하는 방법적인 시도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서양미술의 쉬포르-슬파스(support-surface)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지대와 표층의 2원적인 구조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이원구조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화에 덧붙여 한국의 조형도자는 보다 근원적인 인식의 틀인 자연으로의 회귀가 첨가되어 정신적인 국면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요시하여 일체의 현상적인 문제를 조형언어에서 제거하여 재현적인 요소를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진행은 사회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무목적적인 신체적 행위의 쾌적으로서의 미술, 나아가 그 행위도 제거하는 정신적인 영역으로의 들게 하는 것입니다.

⁵⁾ E·Durkheim, 노치준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민영사, 1992, p22

⁶⁾ 이영철편, 「20세기 미술의 시각」, 서울: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p3

다시 말하면, 재료와 조형성, 형식과 내용, 물질과 정신, 예술과 삶 등 배치되는 2원적 구조를 합일 가능케 하는 무념의 반복행위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라는 문명 성립 이후의 이원론적 관계를 초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층화된 전체가 갖는 구조는 조형자체가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중간자라는 위치, 즉 매개로 작용하는 것으로 상정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전위시키고 자연을 인간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술가는 구체적인 현실이 아닌 곳에서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비물질화 경향

비물질화 경향은 물질자체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수단⁷⁾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다시 말하면 그것 자체의 고유한 물질성을 바탕으로 그 물질 자체가 존재임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료적 성질을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질료 이상의 세계, 즉 물질의 물성을 지워가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초극하려는 '부정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물질화가 가지는 억압의 의미는 일체의 사회적인 발언의 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극의 세계 혹은 반사회적인 세계에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통해서 예술과 예술가를 보호하고 현실태가 아닌 미래의 이상사회와 관계 맺는 거대담론적, 거시적 세계가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을 신비의 영역에 남겨둠으로써 '참여'라는 형태의 행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적인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이상향으로 관심을 돌리고 애써 미시적인 이야기에 눈을 감는 것이 자본주의의 억압과 권위적 정부통제의 억압에서 예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처의 수준이나 차원을 달리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비물질화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지향이 물질적인 세계를 벗어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압의 부정은 그 억압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3. 아방가르드의 딜레마

한국 현대도예는 조형도자라는 정체에서 근거하는 것처럼, 동예의 미술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형도자는 도예가 가지는 현실 필요적인 요소 대신에 미적인 요소를 주요요소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예의 미적 모더니티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으로 실용적 원형에서 벗어나 전문영역으로 미적인 분화현상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형도자의 이러한 전위 및 서위는 실용성이라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의사소통에 난점을 가져오는 모더니즘 미술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을 따르게 되어 도예의 생활세계적 국면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현대미술의 미적 모더니티가 가지는 사회와의 분화 및 소외라는 딜레마가 현대 도예 에도 유사하게 적용됨으로써 도예는 **의사소통수단으로의 정보성이 격상되어 실제로 그 수단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형적인 요소로의 성향은 도예의 실용적인 국면에 도 영향을 미쳐 방식은 실용적인 것에 근거하지만 예술 작품으로 소통하게 하는 양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형도자의 미술적 성향은 공예적 국면의 도예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앞서 미적 선취를 이루지만, 그 선취된 미의식을 사회에 돌려주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창작 국면들이 교란되어 버리는 것을 아방가르드로 규정한다면, 현대도예와 현대미술은 양자 모두 일정부분 **사회와 소통 시스템의 교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규정한 아방가르드는 현대 미술과 사회와의 불화를 원인으로 합니다. 모더니즘에서 미술은,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구조를 가진 전문영역의 분화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발언은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발언 자체가 통제됨으로써 예술은 사회와 결별하고 '고립된 사회'처럼 '고립된 구조'로 존재합니다.

현대도예의 딜레마로써 **실용시스템(공예도자)이 미적 시스템(조형도자)에 의하여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1차 정보성발화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술정보체인 3차 정보성발화체가 전위예술적 성향에 치우침으로 사회와 예술의 대립을 양상합니다.**⁷⁾

7) 박선우 「사회영향에 의한 현대도예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8~160

IV. 결론

한국 현대도예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된 근대화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미적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적인 특수성에 의해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우리의 현대도예를 발원 및 참여 그리고 생활세계적인 국면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지향적인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예가 가지는 본래의 영역인 '생활'에서 그 영역을 '예술'로 옮기게 됨으로써, 현대에서 예술이 걸었던 비사회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성향을 도예도 같은 방식으로 견게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인 통제와 표현의 금지로 인해서 표현의 영역도 협소화 되어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방식으로 색채 및 형태를 제한하는 경향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입니다. 미술이 사회를 떠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전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표현영역을 확대하여 그 표현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순작용이 있는 반면, 우리 현대도예는 표현영역을 확대한다기 보다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측면**을 우리의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재료의 가소성 및 색채의 자율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장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재료의 한계에 부딪히는 년센스를 파생시켰습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 현대도예가 가지고 있는 제 경향들이 사회구조간의 연관관계에 의해서 진행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다원적인 사회구조와 혼재된 문화속에서 도예가 가야할 길로, 도예는 1)예술과 공예의 엄격한 구분에 따른 양비론적 논쟁의 혼재양상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서와 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면을 조성하여야 하며, 2)제작상의 분류개념이나 재료의 제한적 범위를 넘어서 기존 장르의 파괴적인 실험을 통해서 '기의적'국면을 조성해야 하며, 3)기존에 마련된 예술과 공예의 영역을 보완하여, 모더니즘에서 이룩한 제 산물(의사소통구조 합리화)들을 더욱 발전시켜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대도예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확보하여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미완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예는 생활세계에 기반한 실용

적인 부분과 체계에 해당하는 현대미술의 분화라는 부분의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만든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 및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침투 및 붕괴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화의 복합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르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1) 루시앙 골드만, 송기영 외역, 「숨은 신 - 비극적인 세계관의 변증법」, 서울, 연구사, 1986
- 2)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서울:나남출판사, 1993
- 3) E·Durkein, 노치준 역, 「종교사회의 원초적 형태」, 서울:민영사, 1992
- 4) 이영철 편, 「20세기 미술의 시각」, 서울: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 5) 임현진, 「국가와 지배구조」,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대우학술총서, 1999
- 6) 박기웅, 「절정의 모더니즘 현대미술 이론2」, 서울:형설출판사, 2003
- 7) 박선우 외, 「도자조형예술」, 서울:서울산업대학교 출판부, 2000
- 8) 박선우, 「사회적 영향에 의한 현대도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